

고교 야구부 창단 돌연 취소... 전학생들 발 묶였다

목포 A고 10여명 이전 학교 못가고 타 학교로 옮겨도 내년 시즌 불투명 학부모 대책 요구... 학교·교육청 뒷짐

최근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추진하던 야구부 창단이 돌연 무산돼 해당 학교로 전학 절차를 마친 학생들이 무척 전수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17일 전남도교육청과 목포 A고교 등에 따르면 A고교와 모 재단 전남지부는 지난 7월 중순께 야구단 창단을 위한 협약을 했다.

A고교 교장과 재단 책임자 서명이 기재된 협약서엔 야구부 지도자·선수 모집 등 모든 운영은 재단 지부에서 맡아 하되, A고교는 야구부 운영에 대한 금품 지원 없이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야구부 대회 지도자는 재단에서 학교 측에 파견하며 해당 협약 내용은 별도 파기나 변경 절차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창단 감독으로 선임된 B씨는 '선수모집을 서둘러 달라'는 학교측의 요청에 따라 광주동성고·전주고·대전 제일고·정주고 등 4개 학교에서 학생 13명을 모집했다.

하지만 A고교 측이 지난 8월 중순 야구단 창단을 돌연 취소하는 바람에 스카우트된 학생들은 발이 묶이게 됐다. 학생 13명 중 10명은 이미 A고교로 전학을 마쳤거나 전학 관련 절차를 사실상 거의 마친 상태에서 이전 학교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B감독은 창단에 자질이 빛어지지 일부 학생들을 야구부가 있는 타 지역 학교로 전학하도록 소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일부는 아직까지 돌아갈 학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도 교육청



‘광주시 중국문화주간’ 선포식

16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프리지페스티벌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3회 광주광역시 중국문화주간’ 선포식에서 유정현 광주시장과 쉰시엔위 주 광주 중국총영사,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태극기와 오성홍기를 흔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은 '해당 학교에서 야구단을 창단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알아보겠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타 학교로 옮겨더라도 내년 시즌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지도자·선수·동호인 등록규정 제28조(선수활동의 제한)상 중·고교생 선수들이 타 시·도로 이적 맨 최대 1년간 선수로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창단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학교에서 약속대로 야구단을 꾸렸다면 선수로 될 수 있는 학생들의 발이 묶인 셈이다.

A고교 관계자는 “지난달 말 퇴직한 교장이(야구단 창단과 관련해)검토하던 중 예산 등 여러 사항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접었다”며 “협약서는 상대측의 요청에 의해 작성한 것이다. 협약은 했지만 상대방에게(협약서를) 건네주진 않았다. 당시 더 검토해서 창단 계획이 확정되면 협약서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전남 보행로 없는 초교 97곳... 등하굣길 위험 노출

최근 5년 사망 2명 등 사고 315건

광주·전남 초등학교 10곳 중 2곳은 보행로가 없어 어린이들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보행로 미설치 초등학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초등학교 575곳 중 97곳(16.9%)에 보행로가 없었다. 광주는 초등학교 156곳 중 12곳 1.8km 구간이, 전남은 419곳 중 85곳 20.6km 구간이 보행로가 없다.

보행로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초등학교 주변 등에 지정된 어린이 안전구역 내 교통사고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16건으로, 2명이 숨지고 234명이 다쳤다. 전국적으로는 총 2482건이 발생, 32명이 사망하고 2587명이 부상했다. 주 5일 등교를 기준으로 볼 때 매일 등하굣길에 6.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8명이 숨지거나 다친 셈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미얀마 정부, 로힝아족 유혈사태 해결” 촉구

‘광주인권상’ 2인권운동가들 성명

아시아 인권운동가들이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와 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치를 향해 로힝아족 유혈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일보 9월12일자 7면·9월13일자 6면>

지난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인권헌장위크에서 광주인권상 수상자 등 아시아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로힝아족에 대한 폭력이 종식될 수 있도록 미얀마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7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부대행사로 열린 워크숍에서는 동티모르·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의 현지 국가인권위원회장과 바실 페르난도 전 아시아인권위원회장·수실 파쿠를 전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아시아 인권상 수상자들, 비조 프란시스 아시아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등 17개국 58명이 성명 발표에 동참했다.

이들은 “조법적 처형, 집단 강간, 방화, 영아 살해, 추방 등 로힝아족에게 ‘인종 학살’에 준하는 폭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미얀마 정부는 시민권 등 기본 인권마저 없는 로힝아인에 대한 차별을 끝내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힝아족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가해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인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네팔·태국 등 로힝아족에 대한 구호 조치가 미흡한 주변국 정부도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5·18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도 나왔다. /윤현석·김용희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사립유치원 휴업 불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광주지회와 전남지회가 18일 예고된 휴업에 불참하기로 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회는 지난 16일 학부모와 원생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한국유치원총연의 전국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 있는 179개 사립유치원은 이날 정상운영된다.

전남사립유치원연합회도 지역 회장단과 전화로 논의한 결과 휴업에 불참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7 달몰림 03:53
해진 18:35 달짐 17:32

청명한 가을 날씨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 조금	17/27	보성	구름 조금	15/26
목포	구름 조금	19/26	순천	구름 조금	18/28
여수	구름 조금	20/27	영광	구름 조금	17/26
나주	구름 조금	15/27	진도	구름 조금	18/27
완도	구름 조금	19/27	전주	구름 조금	16/26
구례	구름 조금	15/27	군산	구름 조금	16/25
강진	구름 조금	17/27	남원	구름 조금	14/25
해남	구름 조금	17/27	홍산도	구름 조금	19/24
장성	구름 조금	15/2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서~북서	0.5
	면바다	북서~북	1.0~2.0	서~북서	0.5~1.0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면바다(동)	북서~북	1.0~2.0	서~북서	0.5~1.5
면바다(서)	북서~북	1.0~1.5	서~북서	1.0~1.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01	00:34
		18:09	12:46
여수		01:39	07:47
		13:45	20:12

◇ 주간 날씨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19/28	19/26	16/27	15/28	16/28	16/28	16/28

◇ 생활지수

- 경고: 식중독
- 높음: 자외선
- 보통: 피부질환

새마을문고목포시지부

농촌사랑 박람회 IN 전남

2017. 9.20(수) ~ 9.22(금)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

개장시간 1일차 14시~21시 / 2일차 9시30분~21시 / 3일차 9시30분~15시

주최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주관 새마을지도자전남도협의회
후원 전라남도 목포시 새마을지도자목포시협의회

둘째날

제3회 드림하이 콘테스트

DREAM HIGH Contest

주최 주관 새마을문고목포시지부
접수기간 2017.7.13~8.25까지
접수자격 20세미만 청소년(남여무관)
접수방법 전화 및 인터넷 접수 http://goo.gl/V6XRf7 (이름(가명), 나이, 학교, 연락처 기입)
전화문의 010-2183-3777 http://facebook.com/dreamhighcontest

심사일정 예선...2017.9.02(토) 오후 1시 목포해양수산센터2층(MR지참)
본선...2017.9.21(목) 오후 6시~8시 농촌사랑박람회주무대

심사내역 목포시장상, 목포시의장상, 목포시교육장상, 새마을목포지회장상, 새마을문고지회장상,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2지구 라이온스 총재상, 광주일보상, 총 상금 340만원

광주·전남 주요 대학 2018 수시 경쟁률 상승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이 2018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원서를 받은 결과 총 3150명 모집에 2만644명이 지원해 6.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경쟁률은 6.45대 1이었다.

전형별로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이 1877명 모집에 1만542명이 지원해 5.62대 1을 기록했으며, 학생부종합 일반전형은 356명 모집에 3121명이 지원 8.77대 1을 나타냈다.

전남대는 오는 12월15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다.

호남대학교는 1577명 모집에 9925명이 지원해 평균 6.29대 1의 경쟁률로 광주 4년제 사립 대학 중 4년 연속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호남대는 10월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대학교는 1638명 모집에 8576명이 지원해 평균 5.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은 4.55대 1이었다.

동신대학교는 1507명 모집에 803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5.33대 1로 지난해 경쟁률 4.53대 1보다 상승했다. 전형별 경쟁률은 일반전형 학생부 교과가 5.21대 1, 학생부 종합 4.4대 1, 지역인재전형 7.3대 1 등이다. 합격자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수능최저기준 미적용 모집단 위는 오는 29일 이전에, 수능최저기준 적용학과는 12월13일 이전에 발표한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